

3) 온라인DB

국회전자도서관(<http://www.nanet.go.kr>)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http://www.riss4u.net>), 그리고 국가전자도서관(<http://dlibrary.go.kr>)을 이용하여 단행본, 정기간행물, 논문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시사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종합 D/B인 KINDS(<http://www.kinds.or.kr>)나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를 활용할 수 있다. 법



률 정보는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 D/B(<http://www.moleg.go.kr>)를 이용하여 탐색할 수 있고, 인구, 가구, 경제, 산업, 교육 등 각 영역별 통계정보는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http://www.nso.go.kr/juro/index.html>)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학습정보원이란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자료나 자원을 말합니다. 학습정보원에는 책이나 신문·잡지와 같은 인쇄자료, 인터넷과 같은 전자자료, 비디오테이프와 같은 시청각자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서선생님이나 교과담당 선생님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 등은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학습정보원입니다. 우리는 이들 정보원을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방송국, 신문사 그리고 공공기관과 같은 다양한 정보유통기관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정보유통기관으로서 학습정보원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정보원을 선택하는 규형감과 인쇄자료와 인터넷 자료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종합적인 정보 접근 능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4) 기타

정보탐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사서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또한 과제에 해당하는 주제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교도서관의 분류체계를 미리 파악하면 해당 주제의 서가에서 손쉽게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많은 학습정보원을 찾을 수 있다. 최신자료가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정확한 내용과 자세한 도표 및 수치가 필요하다면 책에서 찾아볼 것이 좋다.

5. 과제해결과정 예시

□학습과제 :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작성자 :

단 계	과 제 해 결 과 정
1단계 과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주제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본다. 1.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대표적인 동북공정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가? 3. 고구려 지방의 문화와 사람들이 반도 남쪽의 신라 백제와 같은 문화 민족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3단계 : 소재파악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세부적인 주제를 선정한다. · 지리 정치, 경제 역사의 공통점 보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적 공통점으로 초점을 맞추어 고구려는 한민족의 역사임을 주장하도록 하자 · 사전탐색으로 브라태니카백과사전에서 민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 백과사전과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의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1. 삼국이 같은 말을 썼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 삼국의 의복에 공통점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3. 이상의 질문에서 얻은 답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 세부과제: 삼국의 언어와 의복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또 그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2단계 : 정보탐색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장소와 주요 정보원 1. 우리 학교도서관 단행본 목록DB 검색, 우리집 가까운 공공도서관 단행본목록 2. 웹사이트 : 고구려 연구재단 한국언론재단 www.kinds.or.kr 3. 인물정보 : 서갈수 박사 4. 웹DB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논문 데이터베이스 · 주로 단행본 자료에 관련 자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삼국시대의 역사와 정치적인 자료는 많이 있었으나 문화를 다룬 자료는 드물었다. · 고구려의 언어에 대한 자료는 문헌자료가 필요하고 의복에 관한 자료는 이미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3단계 : 소재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탐색을 위한 검색어 추출하기 : 고대국가 동북공정 한민족 문화교류 정보수집하기 1. 단행본 - DLS 검색 결과 고구려-26건, 백제-13건, 신라-26건, 삼국시대-9건 검색 검색된 자료 중에서 사전탐색을 통해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선택함 ① 국사교과서 p.49-57 ② 한국역사연구회 1998. 『삼국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청년사, p.237-248 ③ 역사학연구소 1993. 『교실 밖 국사여행』, 서울사계절 p.30-33, 58-62 ④ 박은봉 1997. 『한국사 뒷 이야기』, 서울실천문화사 p.14-20 ⑤ 김승만 1999. 『고구려의 그 많은 수레는 다 어디로 갔을까』, 서울바다 p.12-45 ⑥ 박승제 1995. 『한국 고대사의 숨은 이야기』, 서울우리교육 p.125-129 ⑦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Web ① 고구려연구회(2004.10.20.). http://www.koguryo.org/ ② 국사편찬위원회(2004.10.20.). http://www.history.go.kr/ ③ 고구려 연대(2004.10.20.). http://www.goguryeo.org/ ④ 이도학 삼국의 상호 관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정체성 ⑤ 임병준, 고구려말의 차자표기연구-삼국사기 권35,37을 중심으로 ⑦ 사진자료

단 계	과 제 해 결 과 정
4단계 정보활용	<p>찾은 자료 분석하기</p> <p>① 국사 교과서 p.49-57 : 삼국의 관계</p> <p>② 한국역사연구회 : 삼국 언어의 공통점 문자 발음</p> <p>③ 역사학연구소 : 천하의 중심의 고구려 발해사의 이해</p> <p>④ 박은봉 : 삼국의 결혼 풍습</p> <p>⑤ 김용만 : 고구려의 민족 구성</p> <p>⑥ 박승제 : 서동 이야기 - 삼국간의 인적 교류</p> <p>⑦ 이도화 : 삼국의 제사 언어 의복, 풍습, 무기 등의 공통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p> <p>⑧ 임병준 :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고구려의 어휘를 분석하여 중세국어와 유사한 점을 제시하고 있음</p> <p>사이트 내용 분석 및 정리</p> <p>① 고구려연구회 : 고구려 관련 문헌 및 사진자료, 역사답사자료 소개</p> <p>② 국사편찬위원회 : 고구려사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소개 ※ [붙임자료 35]</p> <p>③ 고구려 연대 : 고구려 문화(종교, 의복, 언어, 음식 혼인풍습)</p>
5단계 : 통합정리	<p>분석한 자료를 같은 내용끼리 그룹별로 모은다. 그룹화된 자료들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배열하면 목차가 완성되게 된다</p> <p>보고서 목차 정하기</p> <p>1. 머리말</p> <p>2. 삼국의 정치적 관계</p> <p>3. 언어의 공통점</p> <p>(1) 어휘</p> <p>(2) 이두식 한자</p> <p>(3) 발음</p> <p>4. 의복의 공통점</p> <p>(1) 옷</p> <p>(2) 관모와 신발</p> <p>5. 맺음말</p> <p>보고서는 뒷면에 붙인다.</p> <p>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이미지 자료를 첨부한다</p> <p>시작할 때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뉴스 동영상을 보여주기로 한 탐색 및 접근 단계에서 찾은 KBS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활용함. http://newskbs.co.kr/</p> <p>(중 동북공정 발해·백제시도 편입 시도 [뉴스케트워크] 2004-09-23)</p> <p>자신의 말만 하지 않고 청취자의 반응을 살펴며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함</p> <p>발표가 끝난 후 과제해결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다.</p>
6단계 : 평가	<p>각 단계별로 과제해결 과정을 되돌아보고 자기 평가를 실시 함</p> <p>결과의 정확성과 과정의 효율성을 스스로 평가해본다</p> <p>· 한자가 많아복사한 자료를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자료도 있었다</p> <p>· 보고서 작성에서 인용한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조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p> <p>다른 교과와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하기를 다짐한다.</p>

보고서 - 삼국의 문화적 공통점은 무엇인가?

1. 머리말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 작업으로서 동북아시아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의 문제점은 고조선과 발해 및 고구려를 포함하여 한국의 고대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킴으로서 한국사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북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사전에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통일 등 앞으로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백두산 지역과 간도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역사왜곡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논리적으로 고구려는 한민족의 역사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겠다. 민족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구려가 한민족의 한줄기라는 점이 보다 명확해진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서는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풍습·종교·정치·경제 등 각종 문화내용을 공유하고 집단귀속감정에 따라 결합된 인간집단의 최대단위로서의 문화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공동체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언어와 의복이다. 따라서 삼국의 언어와 의복의 공통점을 제시하여 고구려의 한민족의 한 줄기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2. 삼국의 관계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몽이 건국하였다(BC 37). 주몽은 부여의 지배 계급 내의 분열, 대립 과정에서 박해를 피해 남하하여 독자적으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 지방에 자리 잡았다.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압록강 가의 국내성(통구)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백제와는 부여를 계통으로 한 형제 국가로서 우의를 나누었으며 신라에는 정치,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의 결합으로 성립되었다(BC. 18). 고구려와 같이 부여를 계통으로 하고 있다.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유한 유이민 집단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백제는 한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한의 군현을 막아내면서 성장하였다. 강력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신라와 나제동맹을 맺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신라는 처음 진한 소국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는데, 경주 지역의 토착민 세력과 유이민 집단의 결합으로 건국되었다 (BC. 57). 이후 동해안으로 들어온 석탈해 집단이 등장하면서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왕)으로 추대되었고, 주요 집단들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구려를 통하여 중국의 문물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므로 고구려의 정치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백제와는 나제동맹을 맺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언어의 공통점

(1) 어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고구려어 어휘는 약 80개 정도인데 그 가운데 30개에 가까운 예가 중세 국어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관계 지명에서 분석된 고구려말 어휘 56개 중에서 중세국어까지 명확하게 그 연관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49개, 명확하지 않거나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 자료가 7개로 나타났다. 또한 고구려말 표기자료가 백제 및 신라말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음이 명확한 자료의 수는 56개 중 17개, 백제와 신라말 자료에 없는 것으로 중세 및 현대국어에 이어지고 있는 어휘가 32개로 나타났다. 신라말을 계승한 것이 중세국어라는 견지에서, 중세국어와 고구려말의 이 같은 일치는 신라말과 고구려말의 단일성을 입증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2) 이두식 한자

고구려에서는 중국 한자에도 없는 여러 가지 이두식 한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평양성벽석각], [중원고구려비] 등에 쓰인 이두표기가 신라의 [남산신성비], [임신서기석] 등의 비문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즉 '~에' 라고 읽히는 '중(中)', 문장을 끝내는 '~다(라)' 라고 읽히는 '지(之)', '때에, 이변에, 임시에' 나,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 명령하거나 감독한다' 라는 읽히는 '절(節)' 등의 어휘가 서고 같다. 이러한 이두표기는 고구려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라에 전해졌다.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문」에서 확인되었듯이 신라에서는 '답(畚)'처럼 중국 한자에 없는 독자적인 한자를 역시 만들었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두와 새로운 한자의 제작은 고구려에서 시작하여 백제와 신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언어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3) 발음

한자를 읽는 고구려의 음과 신라의 음이 비슷하거나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 한 예로 설내입성(舌內入聲)인 한자의 음을 들 수 있다. 신라어에서는 '물(勿)' 자로 '뿔(水)' 을 나타내고, '을(乙)' 자로 '을(를)' 을 나타내어 설내입성인 한자의 끝음, 즉 받침이 'ㄹ' 로 나타난다. 그런데 고구려어에서도 '달', '홀', '어울' 에서처럼 그 끝음이 'ㄹ' 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어의 어음체계와 신라어의 어음체계도 서로 비슷하거나 같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바위(巖)' 를 뜻하는 고구려어 '파의', '파해' 는 중세 국어의 '바회' 와 일치하고, '봉우리(峰)' 를 뜻하는 고구려어 '솔이', '수니' 는 중세국어 '수늬' 과 비슷하다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두 언어의 어휘가 많이 일치하고, 이두표기도 그대로 전해져 쓰였으며, 한자를 읽는 음이 같다는 것은 결국 두 언어가 같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의 고서중에서 『양서』를 보면 백제와 고구려의 언어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서』 권54 열전-백제 "지금에 언어와 복장은 대략 고구려와 같은데, 다닐 때 두 손을 맞잡지 않고 절할 때 다리를 펴지 않는 점이 다르다." 또한 『남사』 권79-백제에 "언어와 복장은 대략 고구려와 같다." 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삼국 언어의 차이점은 지금의 지방 사투리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다고 추측된다.

4. 의복의 공통점

(1) 옷

삼국시대에 확립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의상을 보면 상의로는 저고리, 하의로는 바지와 치마, 여기에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허리에는 띠를 매어 고정하며, 발에는 신을 착용하여 몸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를 하고 있다. 동시에 그 위에 두루마기를 덧입어 냉대성 기후에 적합한 북방 유목민 계통의 의복 구조를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옷은 옷자락을 여림 때 오른쪽자락이 왼쪽자락을 덮는 왼쪽여밈이 고유한 형태인데, 이점도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북방의 유목민계 양식이다. 왼쪽 여밈은 활쏘기에 편리한 북방 형태라는 주장도 있다.

당시 중국옷은 위아래가 원피스처럼 통옷이고 오른쪽 여밈을 하였다. 논어에서는 이러한 여밈의 차이가 중화(華)와 오랑캐(夷)를 구별하는 징표라고까지 말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복식 형태는 우리 민족의 형성 및 생활문화의 많은 부분이 북방 유목민에 원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의복에 있어서 "그(백제) 의복은 고려와 더불어 대략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도 "의복은 대략 고려 백제와 더불어 같다"라고 했으므로 삼국은 의복 체계가 거의 동일했던 것 같다. 그러한 신라에서 "색복은 흰색을 숭상했다"고 하였다. 이는 부여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한다. 부여에서는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옷은 흰색을 숭상했는데, 백포대매 포 고가 있다"고 했듯이 백색을 숭상했기 때문이다. 한국 민족을 '백의민족'으로 일컫는 것은 적어도 부여 이래의 전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백포와 고를 입은 이들이 눈에 많이 띈다고 한다. 또 삼국에서 모두 대구고(통이 넓은 바지)가 확인되고 있다.

(2)관모와 신발

부여에서는 "금으로써 관모를 장식하였다"고 했다. 고구려에서도 "귀인은 관에 자색 비단을 사용하고 금으로써 장식한다"라고 하여 귀인의 관모에 금으로 장식했다고 한다. 당의 저명한 시인 이백이 지은 고구려 춤을 소재로 한 시구 가운데 '금화 절풍모'라고하여 절풍 관모에 장식한 금화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백제왕은 "오라관에 금으로 장식한다"고 했다. 백제 무녕왕릉과 충청남도 부여 논산과 남원 나주 등지의 백제 고분에서 각각 출토된 금은제 관식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렇듯 부여에서 비롯하여 고구려, 백제 모두 지배층 신분의 관모에 금으로 장식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 현종이 귀주대첩에서 승리하고 개선한 강감찬 장군의 머리에 금화 8가지를 꽂아 준 사실이 상기된다. 여기서 머리 곧 관모에 금화를 꽂아 준 것은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대 이래의 전통이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한편 고구려인들은 모자에 조우를 꽂는다고 했다. 백제에서도 "그 관의 양 곁에는 꼬리 긴 깃털을 꽂는다"라고 하여 고구려처럼 관모 양 곁에 새의 깃털을 꽂는 풍속이 존재했었다. 신라에서도 깃털을 관모의 양 곁에 꽂았다고 한다. 우리들도 신라의 화랑도를 떠올려보면 우선 모자에 새의 깃털이 길게 꽂혀져 있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이러 풍속은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의성 탑리 고분 천마총 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분 등에서 출토된 관모는 고구려의 영향과 그 연관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고구려 관모는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금동 신발 바닥에 정(뿔)을 달았는데, 이러한 신발은 중국이나 북방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삼국의 언어적인 공통점으로서 어휘, 발음, 이두 사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고서에서 삼국의 언어와 복식이 유사하다는 내용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복의 공통점으로서 옷깃의 왼쪽 여밈, 관모의 장식, 정이 박힌 신발, 흰옷을 널리 입은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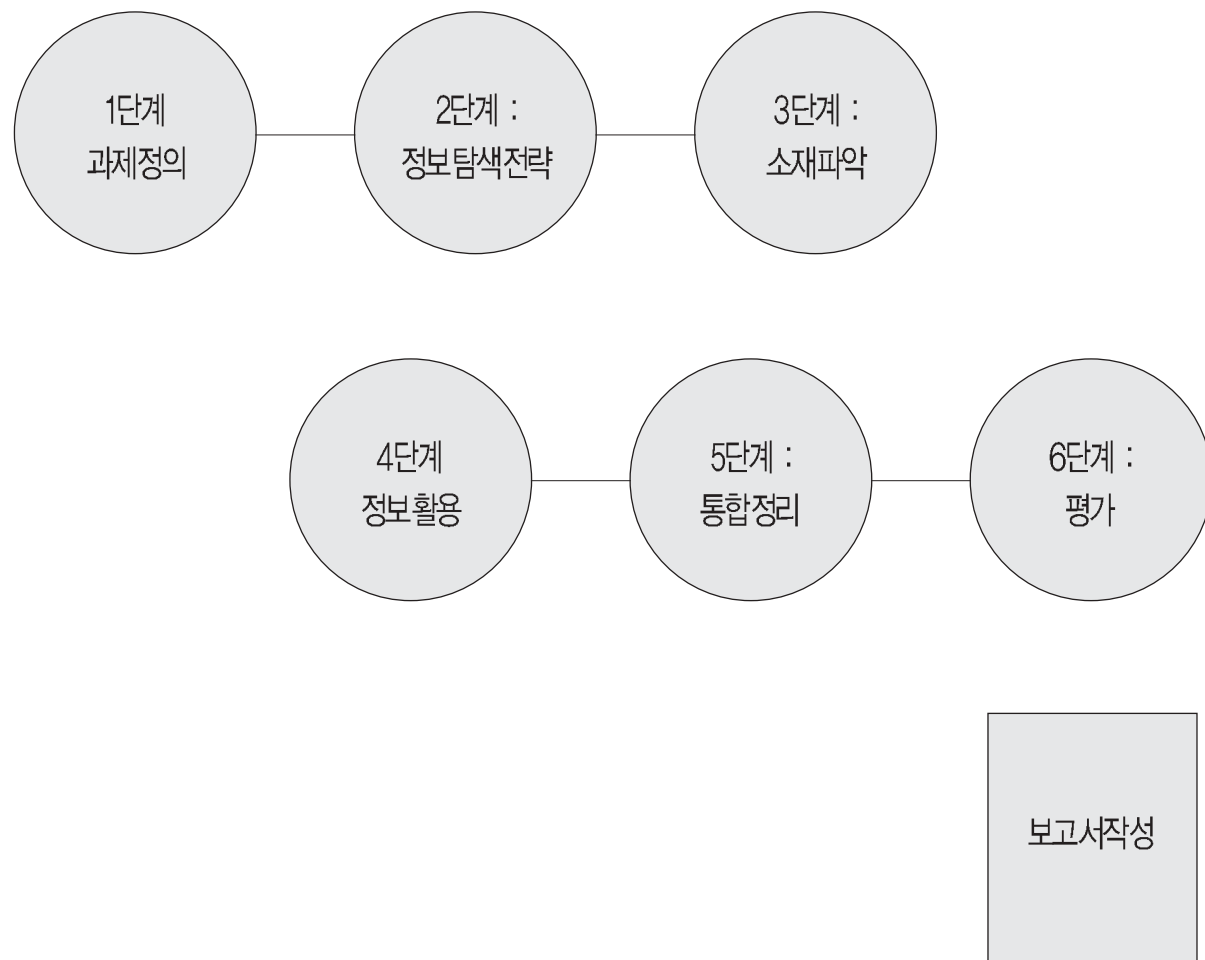
오늘날 경제체제와 국가체제가 서로 다른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공통 요소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공통의 언어이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언어와 문자생활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삼국의 언어와 문자 생활에서 공통점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삼국이 하나의 민족구성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질적인 언어의 토대 위에서 삼국간의 활발한 교류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백제의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가 결혼한 사실, 삼국간에 있었던 수 많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의 교류, 불교전파를 통한 승려들의 교류 등 종교, 풍습, 음식 등의 문화적으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를 포함하는 삼국은 하나의 문화공통체로서 하나의 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한민족은 고조선부터 내려오면서 여러 종족과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한민족의 영역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생각을 가져야겠다.

※참고문헌

1. 국사 교과서 p.49-57
2. 김용만, 1999, 『고구려의 그 많던 수레는 다 어디로 갔을까』, 서울:바다, p.12-45
3. 박승제, 1995, 『한국 고대사의 숨은 이야기』, 서울:우리교육 p.125-129
4. 박은봉, 1997, 『한국사 뒷 이야기』, 서울:실천문화사 p.14-20
5. 역사학연구소, 1993, 『교실 밖 국사여행』, 서울:사계절 p.30-33, 58-62
6. 이도학, 2004, 『삼국의 상호 관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정체성』, 한국전통문화학회
7. 임병준, 2000, 『고구려말의 차자표기 연구-삼국사기 권35,37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8. 한국역사연구회, 1998,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청년사, p.237-248
9. 고구려 연대(2004.10.20.), <http://www.goguryeo.org/>
10. 국사편찬위원회 (2004.10.20.), <http://www.history.go.kr/>
11. 고구려연구회(2004.10.20.), <http://www.koguryo.org/>

6. 과제해결과정 학습활동지



보 고 서

Lined writing area for page 38.

Lined writing area for page 39.

단 계	과 제 해 결 과 정
1단계 과제정의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2단계 : 정보탐색전략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3단계 : 소재파악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단 계	과 제 해 결 과 정
4단계 정보활용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5단계 : 통합정리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6단계 : 평가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보 고 서

보 고 서

Lined writing area for page 46.

Lined writing area for page 47.

단 계	과 제 해 결 과 정
1단계 과제정의
2단계 : 정보탐색전략
3단계 : 소재파악

단 계	과 제 해 결 과 정
4단계 정보활용
5단계 : 통합정리
6단계 : 평가

보 고 서

보 고 서

Lined writing area for page 54.

Lined writing area for page 55.

단 계	과 제 해 결 과 정
1단계 과제정의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2단계 : 정보탐색전략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3단계 : 소재파악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단 계	과 제 해 결 과 정
4단계 정보활용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5단계 : 통합정리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6단계 : 평가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